

울산대학교 사회과학 논집 제3권 제2호 pp. 59~75, 1993.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3, No. 2, pp. 59~75, 1993
Universeity of Ulsan.

농촌 빈곤선의 측정 및 빈곤층의 실태

이은우
경제학과

〈요 약〉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농촌 빈곤선을 추정하고, 빈곤층의 제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용한 자료는 247호의 표본농가자료이고, 빈곤선을 추정하는데는 Leyden 방식을 이용하였다. 247호의 표본가구 중 빈곤가구로 분류된 것은 48호인데, 이들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를 비빈곤가구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빈곤층의 제반 특징을 파악하였다.

Measurement of Rural Poverty Line and Phenomena of Poor Class

Lee, Eun Woo
Department of Economic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rural poverty line and to analyze the phenomena of rural poor class in Korea. For this purpose, a sample survey of 247 rural households were conducted. Among them 48 households were classified as poor households. The living standards and economic behaviors of these 48 households ar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households.

I.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 이후 經濟開發計劃에 힘입어 경제구조가 農業중심에서 製造業, 서비스업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 결과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성장과정에서 部門間, 部門內에서의 不均衡이 심화되어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즉 모든 경제정책이 공업화 우선이어서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농가경제는 극도로 열악한 상태가 되었으며, 이와 함께 농촌인구의 다수가 도시로 이주하게 되어 이들 중 다수는 都市非公式部門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도성장은 달성되었지만 부문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分配의 正義가 실현되지 않아 국민들의 후생수준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심화된 농공간 불균형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農村貧困層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빈곤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라이덴(Leyden) 방식을 이용하여 농촌의 빈곤선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각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빈곤선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가를 표본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의 빈곤선을 측정한 후,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상호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빈곤층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이용자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文獻과 資料이외에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제의 빈곤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빈곤의 개념을 파악하고 빈곤선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들을 고찰한 후, 그 중에서 라이덴(Leyden)방식을 이용하여 1990년 현재 농촌의 빈곤선을 측정했다. 이렇게 구해진 빈곤선으로 빈곤가구를 찾아내고, 이들 빈곤가구와 나머지 가구와의 여러가지 속성을 비교함으로써 전반적인 농촌빈곤층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농촌의 빈곤선을 구하고 빈곤계층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로 농가를 표본조사하였다. 표본농가는 山間 및 中間地帶 87호, 平野地帶 80호, 近郊地帶 80호로 모두 247호이다.

산간지대로 선정된 부락은 경북 영천군 고경면 용전2동으로, 이 부락 30호 전부를 조사하였다. 이 마을은 경지면적 중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42%정도이다. 중간지대로 선정된 부락은 경북 의성군 단일면 용곡2동으로, 65호 중 57호를 조사하였다. 이 마을은 경지면적 중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74%정도이다. 평야지대로 선정된 부락은 경남 밀양군 백산리인데, 이 부락은 낙동강변의 전형적인 평야지대로 경지면적 중 95% 정도가 논이다.

근교지대로 선정된 부락은 경남 양산군 정관면 매학리와 달산리인데, 이들은 서로 인접해 있는 부락이다. 이들 부락은 부산의 근교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정관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매학리는 현재 117가구이나 농공단지때문에 이주해온 가구를 제외하고 그전부터 계속 거주해오던 60호 중 56호를 조사하고, 인접한 달산리에서 24호를 임의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6명의 조사원에 의해서 1990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기간은 1989년 7월 1일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하였다.

II. 라이덴 방식에 의한 농촌빈곤선의 결정

빈곤을 정의하고 빈곤선을 결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¹⁾ 이 절에서는 빈곤선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라이덴(Leyden)방식을 이용하여 1990년 현재 농촌의 빈곤선을 측정해 본다. 라이덴 방식은 上觀(上觀)의 定義에 의한 방빈곤선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통상적인 특성, 즉 이행성(transitivity), 완전성(completeness), 반사성(reflectiveness), 연속성(continuity)을 만족시키는 효용함수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 함수는 유일하고 한정되어 있다고(unique and bounded) 가정한다. 이렇게 되면 각 개인의 후생수준은 0, 1 사이의 값으로 한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0, 1 사이의 값으로 각 개인의 후생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효용은 서수적이고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접근법을 깨고, 19세기의 전통적인 접근법, 즉 효용의 크기가 측정가능하다는 접근법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방법으로 빈곤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별로 所得水準과 각각의 후생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소득수준을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당신의 현재생활 여건하에서 월평균소득이

- () 만원이라면 매우 넉넉하겠다.
- () " 넉넉하겠다.
- () " 그런대로 살아가겠다.(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 () " 부족하겠다.
- () " 매우 부족하겠다.(생활할 수 있는 최저한의 소득)

후생수준의 크기를 [0, 1] 사이의 숫자로 나타낸다면, 5개의 대답은 각각 [0.9, 0.7, 0.5, 0.3, 0.1]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개인 n이 효용수준 d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수준 $y_{d,n}$ 은 (1)식과 같이 개인 n의 가족규모 f_{sn} 과 개인 n의 실제소득 y_n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²⁾

$$(1) \quad \ln(y_{d,n}) = \beta_0 + \beta_1 \ln(fs_n) + \beta_2 \ln(y_n) + \epsilon$$

$\beta_0, \beta_1, \beta_2$ 의 추정치를 b_0, b_1, b_2 라고 하면 (2)식이 성립한다.

$$(2) \quad \ln(y_{d,n}) = b_0 + b_1 \ln(fs_n) + b_2 \ln(y_n)$$

여기서 貧困線은 $y_n = y_{d,n}$ 이 되는 소득수준 y_d^* 이 된다. 따라서 한 사회의 빈곤선은 (3)식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1) 빈곤을 정의하고 빈곤선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李殷雨(1990)을 참조.
2) (1)식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은 李殷雨(1990) 참조.

$$(3) \quad \ln(y_d^*) = b_0 + b_1 \ln(fs_n) + b_2 \ln(y_d^*)$$

$$\ln(y_d^*) = \{1/(1-b_2)\} \{b_0 + b_1 \ln(fs_n)\}$$

이것과 좀 다른 방법으로 각 응답자에게 각자의 현재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빈곤선이 얼마인가를 질문함으로써 빈곤선을 측정할 수 있다. 즉 앞의 소득-후생수준의 질문이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현재 귀하의 생활여건을 고려할 때 월평균 최저생활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빈곤선)”

이 질문에 대답, 즉 각자가 생각하는 최저생활비를 y_{min} 이라고 하면 (3)식과 마찬가지로 이 때에 얻어지는 빈곤선은 $y_{min}=y_n$ 이 되는 소득수준 y_{min}^* 이다. 즉 (4)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quad \ln(y_{min}^*) = \alpha_0 + \alpha_1 \ln(fs_n) + \alpha_2 \ln(y_{min}^*)$$

$$\ln(y_{min}^*) = \{1/(1-\alpha_2)\} \{\alpha_0 + \alpha_1 \ln(fs_n)\}$$

이제 (3)식과 (4)식에 의해 실제의 자료를 가지고 貧困線을 측정할 수 있다. 농촌의 빈곤선을 측정하기 위해 247호의 농가를 표본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본가구의 주요변수들의 평균과 標準偏差는 <표 1>과 같다. 여기서 소득(y)은 표본농가의 월평균소득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1년단위로 측정되어 12로 나눈 것이다. 이 이유는 농가의 소득이 주로 1년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모두 합한 것인데, 농업소득은 농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족의 크기(fs)는 전체가구원수에서 외지로 출타한 가구원수를 제외한 것이다. 이것은 외지로 출타한 가구원은 별도의 가계로 구분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업을 위해서 출타한 가구원은 가족의 크기에 포함시켰다. 왜냐 하면 학업을 위해 출타한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집에서 학비 및 생활비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표 1>에서 y_{min} 은 각자가 생각하는 최저생활비수준이고, $y_{0.5}$ 는 후생수준 0.5에 해당되는 소득수준, 즉 '그런대로 살아가겠다'에 해당되는 소득수준이고, $y_{0.3}$ 은 후생수준 0.3, 즉 '부족하겠다'에 해당되는 소득수준을 나타낸다.

標本調査한 자료를 가지고 (2)식에 의해 回歸分析을 하면 (5)식, (6)식, (7) 그리고 (8)식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5) \quad \ln(y_{min}) = 1.7324 + 0.4225 \ln(fs) + 0.3706 \ln(y)$$

$$(15.107) \quad (9.741) \quad (10.926)$$

$$R^2=0.6700, \quad N=247$$

()안은 t치

$$(6) \quad \ln(y_{0.5}) = 2.0923 + 0.3785 \ln(fs) + 0.3446 \ln(y)$$

$$(18.578) \quad (8.887) \quad (10.346)$$

$$R^2=0.6376, \quad N=247$$

()안은 t치

$$(7) \quad \ln(y_{0.45}) = 1.9614 + 0.3820 \ln(fs) + 0.3470 \ln(y)$$

(17.763) (9.147) (10.637)

$$R^2=0.6505, N=247$$

()안은 t치

$$(8) \quad \ln(y_{0.4}) = 1.8556 + 0.3955 \ln(fs) + 0.3477 \ln(y)$$

(16.933) (9.392) (10.555)

$$R^2=0.6541, N=247$$

()안은 t치

위 식과 같은 결과가 주어지면 (3)식, (4)식에 의해 貧困線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4인가족의 경우 각자가 생각하는 最低生活費를 기준으로 하면 월 평균소득 397.7천원이 빈곤선이 되고 ‘그런대로 살아가겠다’ 즉 후생수준 d=0.5에 해당되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542.2천원, 후생수준 d=0.45에 해당되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454.7천원, 그리고 후생수준 d=0.4에 해당되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417.3천원이 빈곤선이 된다. 이 貧困線으로 貧困家口數를 계산해보면 y_{min}을 기준으로 할 경우 247가구 중 48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 貧困家口比率이 19.4%가 되고, y_{0.5}를 기준으로 할 경우 247가구 중 101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 貧困家口比率이 40.9%가 된다. 그리고 y_{0.45}를 기준으로 할 경우 빈곤가구비율이 30.0%가 되며, y_{0.4}를 기준으로 할 경우 22.7%가 된다.

여기서 가족수는 性別, 年齡, 職業有無 등을 구분하지 않고 각인마다 모두 1인으로 계산하였다. 실제로 가구마다 구성원의 연령별 구성, 학생수 기타 각 가구의 처한 입장에 따라 生計費에 많은 차이가 나고, 따라서 貧困線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동등하게 모두 1인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y_{0.4}을 빈곤선으로 할 경우 빈곤가구와 전체가구와의 후생수준을 비교해보면 빈곤가구의 평균후생수준이 0.2249, 전체가구의 후생수준이 0.5757로 나타나 빈곤가구의 후생수준이 타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평균치 및 표준편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소득(y)	684천원	414천원
y _{min}	449천원	193천원
y _{0.5}	544천원	217천원
y _{0.4}	375천원	171천원
가족크기(fs)	3.66인	1.58인

<표 2> 빈곤선의 측정결과(월소득)

단위: 천원

구분\가족수	1	2	3	4	5	6	7	8	9
y _{min}	156.8	249.7	327.8	397.7	461.9	522.1	579.0	633.3	685.4
y _{0.5}	243.5	363.3	459.2	542.2	616.7	685.2	749.0	809.1	866.0
y _{0.45}	202.0	303.0	384.2	454.7	518.1	576.5	630.9	682.2	730.9
y _{0.4}	180.1	274.1	350.5	417.3	477.8	533.6	585.9	655.3	682.3

III. 農村貧困層의 實態

1. 家口主의 社會的 背景

서론에서 설명한대로 農村의 貧困線을 측정하고 貧困家口의 實態와 特性을 파악하기 위하여 標本家口를 선정하여 標本調査를 실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즉 “귀하의 생활여건을 고려할 때 월 평균 생활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구한 빈곤선을 이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빈곤선을 정의하고, <표 2>의 자료를 이용하면 전체 표본가구 247호 중 48호가 빈곤가구로 나타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이들 빈곤가구 48호의 실태와 특성을 비빈곤가구의 그것과 대비시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家口主의 性別 分布를 보게 되면 <표 3>과 같다. 이것을 보게 되면 가구주 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빈곤가구는 7.5%이나 빈곤가구는 35.4%이다. 이것을 보게 되면 가구주가 여자인 경우 빈곤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게 된다.

<표 3> 가구주의 성별분포

단위: 호수, %

성 별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남	31 (64.6)	184 (92.5)	215 (87.0)
여	17 (35.4)	15 (7.5)	32 (13.0)
계	48 (100.0)	199 (100.0)	247 (100.0)

$$\chi^2 = 26.65 \quad d.f. = 1 \quad p < 0.01$$

가구주의 年齡分布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연령은 우리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표 4>를 보게 되면 빈곤가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빈곤가구보다 훨씬 높다.

가구주 중 70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빈곤가구의 경우 3.0%에 불과하나 빈곤가구는 16.7%가 된다. 60세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빈곤가구에서는 25.1%가

<표 4> 세대주의 연령분포

단위: 호수, %

연 령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29이하	0	3 (1.5)	3 (1.2)
30-39	5 (10.4)	43 (21.6)	48 (19.4)
40-49	9 (18.7)	30 (15.1)	39 (15.8)
50-59	12 (25.0)	73 (36.7)	85 (34.4)
60-69	14 (29.2)	44 (22.1)	58 (23.5)
70이상	8 (16.7)	6 (3.0)	14 (5.7)
계	48 (100.0)	199 (100.0)	247 (100.0)

$$\chi^2 = 18.61 \quad d.f. = 5 \quad p < 0.01$$

〈표 5〉 빈곤가구의 가구원수

단위: 호수, %

가구원수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1	11 (22.9)	8 (4.0)	19 (7.7)
2	6 (12.5)	45 (22.6)	51 (20.6)
3	11 (22.9)	34 (17.1)	45 (18.2)
4	8 (16.7)	47 (23.6)	55 (22.3)
5	5 (10.4)	36 (18.1)	41 (16.6)
6	5 (10.4)	25 (12.6)	30 (12.1)
7이상	2 (4.2)	4 (2.0)	6 (2.4)
계	48 (100.0)	199 (100.0)	247 (100.0)

$\chi^2 = 24.53$ d.f. = 6 $p < 0.01$

되나 빈곤가구는 45.9%가 된다. 그리고 가구주의 平均年齡을 보게되면 비빈곤가구가 51.0세, 빈곤가구가 56.5세로 나타나 빈곤가구의 가구주의 연령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 가구주의 연령은 13년전에 조사된 한 연구결과보다 훨씬 높다. 金一鐵·鄭英一이 1977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영세농가 104호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4세이었다(金一鐵·鄭英一, 1977: 154). 그동안 농촌가구내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젊은층의 가구주는 탈농을 하여 도시로 이주하고 중장년층이 주로 농업을 계속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구주의 연령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이다.

세대별 가구원수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가구원수는 전체가구원 중에서 외지로 출타한 가구원을 제외시킨 것이다. 이것은 외지로 출타한 가구원은 별도의 세대처럼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는 외지로 출타한 경우에도 본가와 경제적인 면에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구원수에 포함시켰다. 이 표를 보면 빈곤가구는 단독세대가 11세대(22.9%)로 상당히 높다.

〈표 6〉은 家口主의 학력을 나타낸다. 빈곤가구 중에서 무학(국퇴포함)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7.9%로 비빈곤가구의 21.6%에 비해 상당히 높다. 국졸(중퇴포함)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빈곤가구의 경우 70.8%이고 비빈곤가구의 경우 51.8%이며, 전체가구의 경우 55.4%로 전체표본가구의 반정도이다. 이것을 보면 농촌가구주의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상당히 낮고, 그 중에서 빈곤가구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렇게 농촌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낮고 평균

〈표 6〉 가구주의 학력

단위: 호수, %

학 력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부학·국퇴	23 (47.9)	43 (21.6)	66 (26.7%)
국졸·중퇴	11 (22.9)	60 (30.2)	71 (28.7%)
중졸·고퇴	10 (20.8)	54 (27.1)	64 (25.9%)
고졸·전문대퇴	4 (8.3)	38 (19.1)	42 (17.0%)
전문대졸 이상	0 (0.0)	4 (2.0)	4 (1.6%)
계	48 (100.0)	199 (100.0)	247 (100.0)

$\chi^2 = 14.91$ d.f. = 4 $p < 0.01$

연령이 높은 것은 학력수준이 비교적 높은 젊은 층 다수가 도시로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빈곤가구의 학력수준이 특히 낮은 것은 비빈곤가구에 비해서 노년층과 여자의 비율이 높으며 이들 노년층과 여자가구주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 경제적 측면

한 가구의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所得水準을 들 수 있다.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소득상황은 <표 7>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의 소득은 1989년7월부터 1990년6월 까지 1년간의 가구별 平均所得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빈곤농가의 1년간의 평균소득은 8,651千원인데, 빈곤가구의 평균소득은 3,121千원으로 매우 낮다. 이 소득을 다시 구성항목으로 나누어 보면 비빈곤가구의 경우 農業所得이 71.2%, 勞賃所得이 13.8%, 其他所得이 15.0% 이고, 빈곤가구의 경우 농업소득이 74.7%, 노임소득이 17.0%, 기타소득이 8.3%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농업소득이란 농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것인데 여기서 농업조수입은 미백, 과일, 채소, 축산물 등 모든 농축산물의 판매액을 말한다. 노임소득은 봉급과 농업노동, 농업의 노동으로 부터 얻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은 상업소득, 이전소득 및 그 외의 소득을 나타낸다. 전체소득 중에서 각 구성항목별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빈곤가구는 노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비빈곤가구는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간 높을뿐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표 7> 소득상황

단위: 천원, %

구 분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농가소득	3,121 (100.0)	8,651 (100.0)	7,576 (100.0)
농업소득	2,331 (74.7)	6,158 (71.2)	5,414 (71.5)
노임소득	530 (17.0)	1,192 (13.8)	1,063 (14.0)
기타소득	260 (8.3)	1,301 (15.0)	1,099 (14.5)

農家經濟의 열악한 상황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負債를 들 수 있다. 농가의 부채상황은 <표 8>, <표 9>, 그리고 <표 10>에 나타나 있다. 표본가구 247호 중 負債를 지고 있는 사람은 174호로 이것은 전체가구의 70.4%이다. 이 비율은 빈곤가구나 비빈곤가구 모두 비슷하다. 호당 부채액수는 비빈곤가구가 3,922천원, 빈곤가구가 3,008천원으로 빈곤가구의 호당 부채액수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914천원 정도 작다. 借入處別 負債狀況을 보면 빈곤가구의 경우 부채액의 74.7%는 농협이고 11.1%가 이웃, 14.2%가 기타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빈곤가구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것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농가의 대부분의 부채는 농협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 부채상황

단위: 호수, %

구 분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부채가 있는 가구	33 (68.7)	141 (70.9)	174 (70.4)
부채가 없는 가구	15 (31.3)	58 (29.1)	73 (29.6)
계	48 (100.0)	199 (100.0)	247 (100.0)

$$\chi^2 = 0.08 \quad d.f. = 1 \quad p > 0.05$$

〈표 9〉 차입처별 가구당 평균 부채상황

단위: 천원, %

차입처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농협	2,248 (74.7)	2,955 (75.4)	2,818 (75.3%)
이웃	333 (11.1)	437 (11.1)	417 (11.1%)
기타	427 (14.2)	529 (13.5)	509 (13.6%)
계	3,008 (100.0)	3,922 (100.0)	3,744 (100%)

借入用途別 負債狀況은 전체가구의 경우 經營費支出이 48.1%로 제일 높고, 그 다음 資本的 支出이 27.5%, 消費支出이 12.2%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이라는 것은 토지구입 및 농기계구입에 지출된 금액을 나타내고, 경영비지출은 농사자금, 축산자금 및 특용작물재배에 지출된 금액을 나타낸다. 소비지출은 의료비, 관혼상제비, 내구소비재 구입 및 생활비에 사용된 금액을 나타낸다.

〈표 10〉 차입용도별 가구당 평균 부채상황

단위: 천원, %

구 분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자본적지출	458 (15.2)	1,169 (29.8)	1,031 (27.5)
경영비지출	1,980 (65.8)	1,755 (44.7)	1,799 (48.1)
소비지출	288 (9.6)	498 (12.7)	457 (12.2)
교육비	240 (8.0)	223 (5.7)	226 (6.0)
기 타	42 (1.4)	278 (7.1)	232 (6.2)
계	3,008 (100.0)	3,922 (100.0)	3,744 (100.0)

빈곤가구와 전체가구의 土地所有 狀況은 〈표 11〉에 나타나 있다. 비빈곤농가의 경지면적(논+밭)은 3292.0평이나 빈곤가구의 경지면적은 1409.7평으로 비빈곤농가 경지면적의 43% 수준이다. 이것에서 볼때 貧困家口와 非貧困家口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의 하나가 耕地面積의 差異이다. 즉 경지면적이 농촌의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지면적(논+밭)을 보면 비빈곤가구는 2907.1평이나 빈곤가구는 1464.1평인데 이것은 비빈곤가구 소유지면적의 50%수준이다. 이것은 〈표 11〉에 나타나듯이 비빈곤가구의 경우 耕地面積이 所有地面積보다 크나, 빈곤가구의 경우 耕地面積이 所有地面積보다 작다. 이것은 비빈곤가구는 貸貸地보다 賃借地가 더 많으나 빈곤가구는 임차지보다 임대지가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1〉 토지소유현황

단위: 평

구 분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경지면적(논+밭)	1409.7	3292.0	2926.2
경지면적(논+밭+과수원)	1155.1	3777.0	3267.5
소유지면적(논+밭)	1464.1	2907.1	2626.7
소유지면적(논+밭+과수원)	1673.6	3251.4	2944.8

〈표 12〉 임차지 및 임대지 현황(호당 평균)

단위: 평

구 분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임차지	논	151.7	566.0	485.5
	밭	32.7	45.4	42.9
임대지	논	238.8	226.6	229.0
	밭	0.0	0.0	0.0

농지의 임차 및 임대현황은 〈표 12〉에 나타나 있다. 이 표를 보면 밭의 임대차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밭의 임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논은 임차의 경우 가구당 평균 임차지가 485.5평, 임대지가 229.0평으로 임차지가 임대지의 2배이상이다. 이것은 농촌에 不在地主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나 빈곤가구의 경우 임차지보다 임대지면적이 더 크다. 이것은 〈표 4〉에 나타나듯이 빈곤가구의 경우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힘든 농사일을 할 수 없어 농지를 임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零細農의 경우 農地를 賃借한다는 13년전의 조사결과(金一鐵, 鄭英一, 1977: 165)와 정반대의 결과이다. 물론 영세농의 경우 耕地面積을 분류기준으로 삼고 빈곤층의 경우 家口員數를 고려한 所得水準을 분류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경지면적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동안에 農村勞動力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는 빈곤층의 경우 농사일을 계속하기 힘들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농지를 임차한 가구수는 비빈곤농가가 247호 중 59호(논만 임차:46호, 밭만 임차:6호, 논 및 밭 임차:7호)로 그 비율은 29.6%이고, 빈곤가구 48호 중 농지를 임차한 농가는 11호(논만 임차:6호, 밭만 임차:3호, 논 및 밭 임차:2호)로 그비율은 22.9%이다.

농지를 임차하는 이유로 제일 많은 것이 비빈곤가구나 빈곤가구 모두 '농지가 부족해서'이다. 즉 所有地만으로 일정소득수준 이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경지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농지를 임차한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친지 및 이웃의 부탁으로'이다. 離農한 家口나 노동력이 부족한 친지나 이웃의 부탁으로 임차를 하는 경우이다. 지주의 소재지는 전체가구의 경우 시급 도시이상 외지에 있는 부채지주가 46%, 인근지역에 거주가 54%이다.

農地를 賃貸한 가구는 비빈곤가구의 경우 199호 중 19호(전부 논만 임대)로 그 비율은 9.5%이고, 빈곤가구의 경우 48호 중 9호(전부 논만 임대)로 그 비율은 18.8%이다. 농지를 임대한 경우의 전체가구 28호 중 '노령화되어서'가 15호, '노동력이 부족해서'가 10호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노동력때문에 농지를 임대한다. 〈표 4〉에서 나타나듯이 농촌빈곤가구의 대부분이 노령화되어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농업을 계속할 노동력을 상실해서 농지를 임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3〉 농지임차 이유

단위: 호수

임 차 이 유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농지가 부족해서	8	27	35
친지 및 이웃의 부탁으로	2	17	19
이농하는 가구의 농지인수	0	7	7
특용작물재배	1	7	8
기타	0	1	1
계	11	59	70

〈표 14〉 지주의 소재지

단위: 호수

소재지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서울	0	1	1
직할시	3	18	21
시급도시	2	8	10
인근지역	6	32	38
계	11	59	70

〈표 15〉 농지임대 이유

단위: 호수

인대이유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노동력이 부족해서	1	9	10
노령화되어서	8	7	15
임대가 유리해서	0	1	1
농사짓기 싫어서	0	1	1
기타	0	1	1
계	9	19	28

다음으로 農機械 保有狀態를 보면 〈표 16〉과 같다. 농기계의 보유비율은 빈곤가구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비빈곤가구에 비해 낮다. 경운기의 경우 전체가구의 보유비율이 71.3%인데, 이것은 경운기는 이미 농촌에 널리 보급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표 16〉 농기계 보유현황

단위: 호수, %

구분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경운기	26 (54.2)	150 (75.4)	176 (71.3)
바인더	2 (4.2)	30 (15.1)	32 (13.0)
콤바인	0 (0.0)	12 (6.0)	12 (4.9)
이앙기	5 (10.4)	57 (28.6)	62 (25.1)

〈표 17〉 주택소유형태

단위: 호수, %

구분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자가	48 (100.0)	191 (96.0)	239 (96.8)
전세	0	6 (3.0)	6 (2.4)
월세	0	2 (1.0)	2 (0.8)
계	48 (100.0)	199 (100.0)	247 (100.0)

$$\chi^2 = 1.99 \quad d.f. = 2 \quad p > 0.05$$

〈표 18〉 주택종류

단위: 호수, %

구 분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신축양옥	6 (13.5)	25 (12.6)	31 (12.6)
한옥(기와)	16 (33.3)	89 (44.7)	105 (42.5)
한옥(스레트)	26 (54.2)	84 (42.2)	110 (44.5)
기타	0	1 (0.5)	1 (0.4)
계	48 (100.0)	199 (100.0)	247 (100.0)

$$\chi^2 = 2.67 \quad d.f. = 3 \quad p > 0.05$$

3. 생활수준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중의 하나인 주택소유형태를 보면 전체표본농가 247호 중 239호가 自家所有인데 이것은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를 막론하고 농촌가구의 거의 대부분이 自家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택종류를 보면 전체가구 247호 중 12.6%인 31호는 신축양옥에 거주하고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농촌가구는 아직도 한옥에 거주하고 있다. 즉 주택종류에 있어서도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사이에 차이점이 거의 없다.

식수는 전체가구의 55.1%가 上水道를 이용하고 있고 41.7%가 전기모타를 이용하고 있다. 식수이용형태에 있어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간에 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다. 그리고 화장실 형태를 보면 빈곤가구나 전체가구 모두 80%이상이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화장실 형태도 5% 유의수준에서 양자간에 차이가 없다.

주택소유형태나 주택형태, 식수이용형태 그리고 화장실형태 등을 비교해 보면 貧困家口가 다른 가구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빈곤층이 自家에 거주하고 있고 간이상수도, 전기모타를 이용하여 食水를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여건인 것처럼 보

〈표 19〉 식수이용형태

단위: 호수, %

구 분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상수도	30 (62.5)	106 (53.3)	136 (55.1)
우물	3 (6.3)	5 (2.5)	8 (3.2)
전기모타	15 (31.3)	88 (44.2)	103 (41.7)
계	48 (100.0)	199 (100.0)	247 (100.0)

$$\chi^2 = 3.83 \quad d.f. = 2 \quad p > 0.05$$

〈표 20〉 화장실형태

단위: 호수, %

구 분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수세식	2 (4.2)	5 (2.5)	7 (2.8)
개량식	7 (14.6)	35 (17.6)	42 (17.0)
재래식	39 (81.3)	159 (79.9)	198 (80.2)
계	48 (100.0)	199 (100.0)	247 (100.0)

$$\chi^2 = 0.59 \quad d.f. = 2 \quad p > 0.05$$

이기도 하지만, 전체가구나 빈곤가구 모두의 80%이상이 재래식 한옥에 거주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농촌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實際의 生活水準을 잘 나타내는 것중의 하나로 耐久所費財 所有比率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표 21>에 나타나 있다. 이 표를 보게되면 모든 항목에서 빈곤가구의 耐久消費財 所有比率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낮다. 칼라 TV는 빈곤가구의 77.1%, 비빈곤가구의 경우 93.5%가 소유하고 있고, 세탁기는 빈곤가구의 29.2%, 비빈곤가구의 53.3%가 소유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TV, 냉장고 등 기본적인 가전제품이 전반적으로 농촌에 많이 보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내구소비재 소유비율

단위: %

소비재 종류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칼라 TV	77.1	93.5	90.3
냉장고	85.4	97.5	95.1
전화	77.1	96.5	92.7
세탁기	29.2	53.3	48.6
오디오(전축)	8.3	27.1	23.5
비디오	10.4	16.1	15.5
전자레인지	2.1	2.0	2.0
가스레인지	85.4	95.0	93.1
카메라	22.9	33.7	31.6
오토바이	22.9	51.3	45.7
승용차	0.0	4.5	3.6
피아노	0.0	0.5	0.4
일간신문구독	18.8	28.6	26.7

4. 빈곤상태 및 사회에 관한 인식

농촌주민들이 빈곤상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해보았다. 먼저 貧困의 概念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어느정도까지 사는 것이 빈곤을 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체가구의 약 3분의 2, 빈곤가구의 약 절반정도가 ‘의·식·주해결+자녀교육해결+기본적인 문화생활을 해야만이 가난을 면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즉 농촌주민의 2/3 이상이 생각하는 빈곤선은 의식주와 자녀교육과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해 응답한 사람은 빈곤가구는 52.1%이나 비빈곤가구는 70.9%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시키면 빈곤을 면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빈곤가구는 10.4%이나 비빈곤가구는 3.5%이다. 빈곤가구와 전체가구의 응답상황을 볼때 빈곤가구의 기대치가 전체가구의 기대치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그러나 5% 유의수준에서 양자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

자신이 빈곤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빈곤가구의 52.1%, 비빈곤가구의 27.1%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아니다’로 응답한 사람은 빈곤가구의 8.3%, 비빈곤가구의 32.2%이다. 즉 빈곤가구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자신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표 22〉 빈곤을 변했다고 생각하는 생활수준

단위: 호수, %

구 분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기본적인 의식주해결	5 (10.4)	7 (3.5)	12 (4.9)
의식주해결+자녀교육해결	8 (16.7)	27 (13.6)	35 (14.2)
의식주해결+기본적인 문화생활	8 (16.7)	21 (10.6)	29 (11.7)
의식주해결+자녀교육해결 +기본적인 문화생활	25 (52.1)	141 (70.9)	166 (67.2)
이웃과 비슷한 생활수준	2 (4.2)	5 (1.5)	5 (2.0)
계	48 (100.0)	199 (100.0)	247 (100.0)

$$\chi^2 = 8.66 \quad d.f. = 4 \quad p > 0.05$$

〈표 5-23〉 당신은 현재 빈곤하다고 느끼십니까?

단위: 호수, %

구 분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그렇다	25 (52.1)	42 (21.1)	67 (27.1)
아니다	4 (8.3)	64 (32.2)	68 (27.5)
중간이다	17 (35.4)	90 (45.2)	107 (43.3)
모르겠다	2 (4.2)	3 (1.5)	5 (2.0)
계	48 (100.0)	199 (100.0)	247 (100.0)

$$\chi^2 = 23.87 \quad d.f. = 3 \quad p < 0.01$$

나타났다. 전체가구의 70.4%가 빈곤하거나 중간이라고 대답한 것은 전반적으로 농촌생활수준이 낮은 상태라는 것을 나타낸다.

‘현재의 마을에서 몇 % 정도가 빈곤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빈곤가구의 50.0%, 비빈곤가구의 38.7%는 그 마을 사람의 10-30%가 빈곤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 30-50%의 사람들이 빈곤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마을의 빈곤정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양자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

이와같은 貧困의 理由가 무엇이나 하는 질문에 빈곤가구나 비빈곤가구 모두 ‘정부정책잘못’이라고 응답하고, 다음으로 ‘본인의 능력 및 성실성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빈곤의 대물

〈표 24〉 귀하의 마을 사람들의 몇%정도가

빈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호수, %

구 분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10%이하	8 (16.5)	20 (10.1)	35 (14.2)
10-30%	24 (50.0)	77 (38.7)	122 (49.4)
30-50%	13 (27.1)	59 (29.6)	68 (27.5)
50%이상	3 (6.3)	43 (21.6)	22 (8.9)
계	48 (100.0)	199 (100.0)	247 (100.0)

$$\chi^2 = 0.74 \quad d.f. = 3 \quad p > 0.05$$

〈표 25〉 위와 같은 빈곤상태의 이유

단위: 호수, %

구 분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가구
빈곤의 대물림(부모탓)	6 (12.5)	20 (10.1)	26 (10.5)
정부정책잘못(정부빛사회탓)	20 (41.7)	77 (38.7)	97 (39.3)
본인의 능력 및 성실성 부족	13 (27.1)	59 (29.6)	72 (29.1)
어쩔수 없는 사회현상	9 (18.8)	43 (21.6)	52 (21.1)
계	48 (100.0)	199 (100.0)	247 (100.0)

$\chi^2 = 0.74$ d.f. = 3 $p > 0.05$

림(부모탓)'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제일 작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모두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현사회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貧困家口와 非貧困家口 사이에 별로 큰 차이가 없다.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모두 동네주민과의 친교에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양자 모두 정부의 농업정책에도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거주지의 보건 및 의료시설에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현재 농촌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낮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전반적으로 농촌 가구주들이 保守性向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조사대상 농촌가구주의 약 3분의 2가 50대의 높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농촌생활의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모두 낮은 소득수준을 들고 있고, 다음으로 양측 모두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것을 들고 있다. 각 항목별 불만사항의 순위는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가 같으나 빈곤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에 불만이 많고 비빈곤가구는 힘든 농사일에 불만이 많다. 이것은 빈곤층은 경지규모가 작아 농사일에 상대적으로 덜 어려우나 그들은 低所得層이기 때문에 所得水準이 낮은 것에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양자간에 불만사항에 대해서 5% 유의수준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다.

10년후 농촌생활에 대한 전망을 질문해 보면 '도·농간 소득격차가 더욱 심해진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빈곤가구의 경우 68.8%, 비빈곤가구의 49.2%이고, '격차는 심해지지는 않을 것이나 도시보다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빈곤가구의 20.8%, 비빈곤가구의 41.7%로

〈표 26〉 현사회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빈곤층	비빈곤층	전체가구
전반적인 농촌생활	43	45	44
정부의 농업정책	38	35	36
거주지의 교육시설	54	49	50
거주지의 보건및의료시설	42	38	39
주거환경(상·하수도등)	69	72	71
행정기관 서비스	55	55	55
동네주민과의 친교	93	92	92

* 매우 만족(100점) 약간 만족(80점) 보통(60점)

약간 불만족(40점) 매우 불만족(20점)

* 각 분항에 나타난 점수들은 응답자들의 평균점수임.

〈표 27〉 농촌생활의 불만사항

단위: 호수, %

구 분	빈곤층	비빈곤층	전체가구
낮은 소득수준	20 (41.7)	59 (29.6)	79 (32.0)
교육, 복지, 문화시설의 부족	9 (18.8)	40 (20.1)	49 (19.8)
힘든 농사일	7 (14.6)	46 (23.1)	53 (21.5)
농산물가격의 불안정	12 (25.0)	54 (27.1)	66 (26.7)
계	48 (100.0)	199 (100.0)	247 (100.0)

$$\chi^2 = 3.16 \quad d.f. = 3 \quad p > 0.05$$

〈표 28〉 10년후 농촌생활에 대한 전망

단위: 호수, %

	빈곤층	비빈곤층	전체가구
도·농간 소득격차가 더욱 심해진다	33 (68.8)	98 (49.2)	131 (53.0)
격차는 심해지지는 않을 것이나 도시보다는 못할 것이다	10 (20.8)	83 (41.7)	93 (22.7)
도시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1 (2.1)	13 (6.5)	14 (5.7)
오히려 도시보다 나아진다	0 (0.0)	1 (0.5)	1 (0.4)
모르겠다	4 (8.3)	4 (2.0)	8 (3.2)
계	48 (100.0)	199 (100.0)	247 (100.0)

$$\chi^2 = 13.62 \quad d.f. = 4 \quad p < 0.01$$

빈곤가구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장래의 농촌생활에 대해 훨씬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가구나 비빈곤가구를 막론하고 농촌생활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이제까지 라이덴 방식에 의해 농촌의 빈곤선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표본가구를 빈곤층과 비빈곤층으로 구분하여 빈곤층의 제반 특징을 고찰하였다. 라이덴 방식은 각 개인의 주관적인 응답을 가지고 빈곤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반면 객관적인 빈곤선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농가를 빈곤층과 비빈곤층으로 구분하여 빈곤층의 제반 특징을 고찰한 결과,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생활수준이나 사회만족도 등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빈곤층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빈곤층에 대해 여러 면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및 資料〉

- 金一鐵·鄭英一, “韓國 零細農에 관한 社會·經濟的 研究,” 『사회과학연구보고 I』,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77.
- 徐相穆, “貧困人口의 推計와 屬性分析”, 『韓國開發研究』, 1979년 여름호.
- 徐相穆 外,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對策』, 韓國開發研究院, 1981.
- 李殷雨, “貧困의 概念과 貧困線의 測定,” 『울산대학교 연구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21권 제1호, 1990.
- 李俊求, 『所得分配의 理論과 現實』, 다산출판사, 1989.
- 임창호 외, 『도시빈곤층대책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89, 12.
-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下)』, 韓國開發研究院 연구총서 30, 49, 1979, 1982.
- 洪起容 編著, 『都市貧困의 實態와 政策』, 檀大出版部, 1986.
- 江口英一, 『現代の低所得層(上,中,下)』, 未來社, 1982.
- Ahluwalia, M. S., “Inequality, Poverty and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3, No. 4, 1976.
- Atkinson, A. B., *The Economics of Inequality(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Chenery, H. B., et al., *Redistribution with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Fields, G. S., *Poverty, Inequality and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Goedhart, T., et al., “The Poverty Line: Concept and Measurement,”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 Vol. 12, No. 4, Fall 1977.
- Hagenaars, A. M., *The Perception of Poverty*,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 V., 1986.
- Lansley, S., “Changes in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UK, 1971-1976,” *Oxford Economic Papers*, Vol. 32, No. 1, 1980.
- Lipton, M., *Why Poor People Stay Poor*,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 Radwan, S., and Lee E., *Agrarian Change in Egypt*, ILO, 1986.
- Sen, A. K., “Poverty: An Ordinal Approach to Measurement,” *Econometrica*, Vol. 40, No. 2, March 1976.
- ,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Poverty,”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ol. 81, No. 2, 1979.
- , “Poor, Relatively Speaking,” *Oxford Economic Papers*, Vol. 35, 1983.